

# 이달의호

## Contents

중증장애인 인턴 연수에 참여하고 나서... 2

동료상담 양성교육 “너와 나의 징검다리” 기초과정 4

강북센터 3차 자조모임(보치아) 6

지역문화축제 ‘4.19 혁명 국민문화제’ 참여 8

생명사랑모임의 취지와 의미 10

강북구 중증장애인 권리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욕구조사 및 개선과제 찾기 연구결과 보고서 12

활동보조인을 하며..... 14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18

장애인에티켓 . 시각장애인 19

이달의 정보 21

이달의 시 22

강북센터 CMS 회비 납부목록 23

광고 24



# 중증장애인 인턴 연수에 참여하고 나서…….

김성윤



인턴 연수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5일 동안의 교육은 알차면서 인턴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4월 3일에는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배경과 취지, 직장에절 등의 교육이 이었고, 4월 4일에는 동기부여 및 자신감 향상 비전교육, 장애개념의 변천과 발전과정, 장애인복지 동향 및 법과 정책 안내가 있었고, 4월 5일에는 사업기획에서 결과보고까지, PPT 교육이 있었습니다. 4월 6일에는 기초 행정의 이해, 회계기초&지원금사용의 이해 등의 교육이 이었고, 4월 7일에는 교육소감 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번 교육의 강사는 강현욱 사무처장((사)해냄복지회), 조안나 주임(Good Job CIL), 정혜식 대표(H스피치커뮤니케이션), 김재춘 소장(가치혼합경영연구소), 김재익 상임이사((사)해냄복지회), 서인환 사무총장(한국장애인재단), 한정재 국장(그린라이트), 김종원 연구원(푸른복지사무소), 이종길 사무처장(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경식 주무관(서울시자립정책팀), 양지은 아나운서(대전교통방송MC) 등의 강사님들이 강의에 오셔서 많은 유익하고 훌륭한 강의 등을 하여 주셨습니다.

직장에절의 교육은 직장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것 등을 배웠습니다. 직장인은 프로다운 태도, 감사하는 마음,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갖추어야 될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관련 강의를 통해서서는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유익한 교육시간이었습니다. PPT교육은 파워포인트에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 실무에 필요한 컴퓨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시간으로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설명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사업기회에서 결과보고까지’의 교육은 기획서나 보고서 관련한 업무능력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업무관련 역량을 높이는 실무역량강화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인턴 실무역량과 지식을 배우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인턴 연수였습니다.



인턴 연수는 실제로 인턴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동료상담 양성교육 “너와 나의 징검다리” 기초과정

전난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는 2017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너와 나의 징검다리” 기초과정]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의 방 배정을 마친 후 4시부터 시작하는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강북센터 스태프들은 현수막과 포스터들을 붙이며 2박 3일 동안 강의실로 쓰일 대방동 여성프라자 304호를 꾸미기 시

작하였다.

강의 시간인 4시가 되지 않았는데 참가자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모이기 시작하시는 걸 보고 이번 참가자분들은 적극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NEW & GOOD(새로운 것과 좋은 것)이라는 간단히 그날에 각자가 느꼈던 새로운 것과 즐겼던 것을 돌아가며 얘기를 나누었다. 잠시 휴시시간을 취한 뒤 세션을 통해 동료상담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 되었다.



동료상담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이 되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등한 입장과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잘 경청해 주는 것이다.

동료상담의 목표로는 ①자기 신뢰의 회복 ②인간관계의 재구축 ③사회의 변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것들을 목적으로 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 상



담함으로써 내담자는 물론 상담자도 함께 상처가 치유되고 장애로 인한 슬픔이나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동료상담을 하는 내담자는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감정해방을 하게 되고 자기감정에 솔직하게 됨에 따라 자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 자기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재구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 재구축을 통한 사회활동은 자연스럽게 사회변혁을 불러온다.

11일 둘째 날, 강의는 '자기주장 훈련' 과 '역할극' 이 진행되었다. '자기주장 훈련' 이란? 평소에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말하거나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내용을 말함으로써 자기의 입장이나 느낌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역할극' 은 어떤 상황에서의 나와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현실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역할극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말을 만들어 억압된 감정이나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을 내뱉음으로써 내담자의 감정해방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강의는 그야말로 참가자들의 폭풍 같은 적극성이 담보되어야만 했던 강의였다. 이번에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에 참가한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얘기를 하셔서 강의가 순조롭고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동료상담가 기초과정은 기존에 해오던 딱딱한 강의 방식이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자리여서 강의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응도와 집중도가 높았다. 2박3일 동안의 평가하는 자리에서는 5월에 있을 심화과정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속출하는 기분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료상담가 기초과정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강북센터 3차 보치아 자조모임

주영경

2017년 4월 08일(토) 10시 ~ 12시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3층 강당에서 3차 자조모임[보치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자조모임에는 오랜만에 참여하신 서〇〇님이 포함되어 있었다. 평소에도 연예인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연예인처럼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나타날 줄 꿈에도 몰랐다. 그렇게 반가운 얼굴이 보여 인사를 나눈 후 게임진행을 위한 세팅을 하고 진행과 관련하여 자조모임 회장님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다.



자조모임[보치아] 1 ~ 2차에는 게임위주로 진행하였으나, 이번 자조모임은 회장님의 주도하에 1시간동안은 표적구(흰 공)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하여 표적구와 최대한 가깝게 맞추는 연습을 해보았다. 눈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표적구 위치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1시간동안 표적구에 가까이 맞추는 연습을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평상시와 같이 개인전 보치아 게임을 진행하였다. 개인전으로 진행되다보니 팀을 선별할 이유도 없이 곧바로 시작됐다.

“〇〇씨 ~ 저 흰 공 맞춰 봐요! 잘할 수 있지?”

“어이구 ~ 잘 하네 ~ 우리 〇〇씨 ~!!!”

보치아 게임이 진행되는 내내 참가자와 보조인이 협동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다.

표적구 맞추기 연습과 보치아 개인전을 진행하니 어느덧 12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둘러 강당을 정리하고 지하1층으로 내려가 도시락을 기다리며 참여자들 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





다.

“한솔도시락 왔습니다.~”

반가운 도시락 도착소리에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스텝이 준비한 도시락을 배분한 뒤 함께 맛있는 도시락을 먹었다.

“와 ~ 어떻게 점심이 점점 맛있어져?”

“그러게 ~ 앞으로 매달 점심메뉴가 기대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준비한 도시락을 맛있게 먹어주시니 이보다 기쁠 수가 없었으며 활동보조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뒷정리를 마무리하였다. 일찍 식사를 마친 분 들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참여자들과 담소나누기에 바빴다.

보치아 게임할 때에는 정신없이 게임에 집중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누기 어려웠지만 느긋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참여자들 간 관심사 등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3차 자조모임[보치아]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점차 횟수가 진행될수록 참여자들 간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과 진행방향을 전과 다르게 구성하니 더욱 집중하며 흥미 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지역문화축제 ‘4.19 혁명 국민문화제’ 참여

문지수

우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는 이번 자립생활기술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축제 프로그램을 “4.19 혁명 국민문화제”에 참여 시행하게 되었다.



‘4.19 혁명 국민문화제’는 강북구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써 4.19 혁명에 대해 의의를 가지고 4.19 혁명 관련 행사와 전시 및 체험 테마존 부스 등을 구성으로 매년 4월에 진행되는 대국민 문화 축제이다.

일기예보를 보니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큰 걱정을 안고 4월 18일(화)일이 오고 말았다. 당일 아침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있어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의 기대감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12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는 점점 거세지고 오락가락 하여

참여자분들에게 양해를 구해 강북센터 프로그램실(1707호)에서 4.19 혁명 관련 영상 자료를 보며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비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참여자분들은 밖으로 나가 ‘4.19 혁명 국민문화제’를 즐기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아 비옷과 우산을 챙겨 비오는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하였다.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 국민문화제’의 장소인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는 천막을 친 부스 존들이 늘어서 있었다. 체험 부스 존을 살펴보니 부채 만들기, 목걸이 만들기, 가훈 써주기, 전래놀이체험, 낭독방송체험, 한지 등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숲 놀이 체험, 태극기 목걸이, 태극기 캘리그래피, 태극기 부채







만들기 등 4.19를 기념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우리들은 오락가락거리는 빗속에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사진도 찍고 여러 부스 존을 체험하며 어느덧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참여하기 위해 준비한 태극기는 비에 젖을까봐 아쉽게도 펼치지 못하였다. 참여 내내 오락가락 하던 비는 알뜰게도 행사 참여를 다 마치고나니 완전히 소강상태가 되었다.

긁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4.19혁명 국민문화제'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 생명사랑모임의 취지와 의미

허효숙

4월 8일 토요일 15:00 ~ 16:25, 우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7층 프로그램실에서 아름다운 생명사랑 기관과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아름다운 생명사랑이란?’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과 교육 및 연구 사업을 통하여 존엄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기 위한 생명사랑운동체로 ▪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 공부방어린이 보건의료사업 ▪ 동남아시아 보건의료사업 ▪ 생명사랑의료 교육 및 연구사업 ▪ 북한 어린이 분유보내기 사업 등을 의료인들과 후원자,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관이다.

특히 그 중 생명사랑 의료학교 라 하여 의료진과 의대생들이 뜻을 모아 동아리 형태로 ‘장애란 무엇인가’, ‘장애를 감당하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 과제와 고민을 하고 장애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건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있다.

생명사랑 의료학교는 장애인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우리 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설립 목적, ②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사, ③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요 사업을 알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력하여 포괄적인 상호협력관계 수립과 업무추진을 통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설립목적 취지와 부합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 자리를 요구했다.



따라서 4월 8일, 대상자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발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만든 것이다.

열심히 홍보용 리플렛과 다과를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왠지 설레었다.

미팅은 밝은 모습과 기대감으로 채워

졌고 우리 센터의 연혁부터 설명하면서 이용자, 활동보조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아름다운 생명사랑 외부 손님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경청해주셨다.

우리 강북센터 각 사업 즉,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실천, 권익옹호, 정보제공 및 의뢰, 선택사업, 특화사업을 각 사업별 담당자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동료상담,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전난희 주임부터 자립생활기술실천을 담당하는 문지수 사원, 권익옹호를 담당하는 허효숙 사원, 기타 및 특화사업을 담당하는 주영경 주임까지 차례대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생명사랑 외부 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을 통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아름다운 생명사랑” 양 기관은 장애인 건강 향상을 위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① 장애인의 건강 상담 지원
- ② 양 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교류·협력
- ③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등 지역 사회자원으로서의 역할

“좋은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훈훈함으로 가득하게 마무리 인사를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들에게 장애인 자립센터의 취지와 장애인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린 거 같아 뿌듯했다.

# 강북구 중증장애인 권리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욕구조사 및 개선과제 찾기 연구결과 보고회

박동렬



‘강북구 중증장애인 권리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욕구조사 및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욕구조사 결과발표가 2017년 3월 29일 강북구 장애인회관 2층 강당에서 13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욕구조사는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 희망나눔기 공모사업’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며,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조사하여 권리향상을 위한 지원책과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제도화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강북구 거주 장애인의 이동 권,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등의 영역에서 설문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설문자의 범위는 강북구 거주, 20대 이상 65세 이하의 지체, 뇌병변, 지적, 시각, 청각장애 영역에의 장애인 300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파악된 욕구는 아래의 표로 정리됩니다.

구분	파악된 욕구와 시사점
<p>&lt;2장&gt; 주거생활</p>	<p>1. 상당수의 중증장애인이 장애 관련 집안구조를 고치고 싶어 함.                      ➤ 가장 고치고 싶은 집안 구조는 ① 앉아 이용가능 샤워시설 &gt; ② 화장실 좌변기 안전손잡이 &gt; ③ 턱 낮추기(방문, 현관문등) &gt; ④ 리모컨 문 열림 장치 순서임                      - 이미 개조하지 않은 응답자 206명 중 103명(50.2%)이 고치고 싶어 함.                      - 170명 참여, 281개 선택 중 앉아이용 샤워시설 53건(18.9%)&gt; 화장실 좌변기 안전손잡이 43건(15.3%)&gt; 턱 낮추기 42건(14.9%)&gt; 리모컨 문 열림 장치 27건(9.6%) 순서</p> <p>2. 불편한 집안 구조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① 경제적인 부담(응답 270명중 100명)&gt; ② 자가 소유 주택이 아님(응답 270명 중 84명)이 대다수임.                      ➤[시사점] 중증장애인의 불편 없는 주거생활을 위해 개인 부담이 아닌 공적 지원, 지역사회 지원을 통한 시급하고 필수적인 장애 불편 집안구조를 개선 필요함.</p> <p>3. 장애 관련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집안 구조를 개조하고 싶어 하는 중증장애인의 상당수가 기초 생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거주 하고 있음.                      ➤[시사점]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장애 불편한 집안구조를 개조해야 함.                      - 화장실 좌변기 안전손잡이: 원하는 153명 중 96명 미설치 중(설치 원함)                      - 리모컨 전등스위치: 원하는 178명 중 153명 미설치 중(설치 원함)                      - 시각장애인용 비상경보기: 원하는 시각장애인응답 23명 중 22명 미설치                      - 청각장애인용 경광등 초인종: 원하는 청각장애인응답 28명 중 24명 미설치</p>
<5장>	<p>1. 더 많은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가 되도록 시행중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며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p>

건강관리	<p>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함.</p> <p>① (40세 이상)건강검진을 못 받은 장애인 비율이 높음(응답자 174명의 30%, 52명이 검진 못 받음): 이유 중 ! ) 두려움, 필요성 못 느낌(응답 69명 중 22명) <u>☞[시사점] 건강검진 필요성 의식 확산 홍보, 교육 등 필요</u></p> <p>!!) 병원 가는 교통편 불편, 거동이 불편해서 등 다수확인 <u>☞[시사점]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동행 서비스 등 제공 필요</u></p> <p>②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가까운 병원에서 못 맞은 중증장애인도 71명임(응답자 290명의 24.8%): 이유 중 ! ) 거동이 어려워서 맞지 못했음(25명) <u>☞[시사점] 방문접종 사전신청을 받는 시스템 구축 요(아니면 동행 서비스 마련)</u></p> <p>!!) 몰라서 못 맞음(17명) -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함.</p>
<6장> 여가생활	<p>1. 중증장애인 여가생활 활성화에 좀 더 주력하길 바라는 욕구는 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126건) &gt;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125건) &gt;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85건) &gt; 공연관람 확대(83건) 순서임. <u>☞[시사점] 중증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해아 예) 자유의견 중 안마, 건강관리 바우처/장애인 수영 확대 등</u></p> <p>2. 중증장애인은 경제적 부담이 덜하며 이용교통이 편리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공공 문화여가생활을 원하고 있음.</p> <p>- 만족 못하는 주된 이유: 경제부담(69건), 이용교통수단 불편(30건), 편의시설 부족(28건)</p>
<7장> 자립생활	<p>1. 중증장애인은 집 밖 활동 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응답 200명중 91명)과 외출 시 동반자 없음(응답200명중 41명)을 불편한 주된 이유로 생각하고 있음.</p> <p><u>☞[시사점] 중증장애인 외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면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이 될 것임(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확대는 꾸준히 추진되어야 함)</u></p> <p>2. 많은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 이용시간 추가 지원을 원함.(응답 216명 중 추가지원 필요 97명) <u>☞[시사점] 활동지원 이용시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지원책 검토할 필요 있음.</u></p>
<8장> 복지증진	<p>1.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강북구에 요구사항은?(252명 응답, 463선택 중에서) ① 활동지원 시간 확대(107건) &gt; ② 이동불편 보행환경 개선(80건) &gt; ③ 문화여가, 체육활동 확대(75건) &gt; ④ 장애불편 주거시설 개선(72건) &gt; ⑤ 장애인 건강관리 확대(55건) 순서임.</p>
<9장> 장애인 보장구	<p>1. 장애인 보장구 구입, 유지관리 관련 공공기관 지원 사항을 '모른다.' 고 응답한 중증장애인의 수가 응답자 209명 중 48명으로 23%를 차지함. <u>☞[시사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유지 지원 사항을 장애인에게 좀 더 잘 알리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u></p> <p>2.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에 안전장치와 편의 장치 설치가 부족함.</p> <p><u>☞[시사점] 중증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량불빛 반사지 또는 안전반사광 등의 안전장치' 와 '우산꽂이, 전동휠체어 조정 판 비 가림 보호막 등의 편의 장치' 의지원이 필요함.</u></p> <p>- 휠체어 차량 불빛반사지, 안전반사광: 응답 133명 중 87명 미설치</p> <p>- 휠체어 우산꽂이: 130명 중 93명 미설치</p> <p>- 전동휠체어 조정 판 비 가림 보호막: 응답 118명 중 104명 미설치</p> <p>3. 청각장애인 응답자 27명 중 22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청기를 제 때 교체하지 못한다.' 고 응답함. <u>☞[시사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청기를 제 때 교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낡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지원 필요</u></p>

# 활동보조인을 하며…….

박지훈



보치아 자조모임 참여한 이용자 보조하는 모습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 20일부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을 하고 있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 강북센터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인연으로 강북센터에서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같습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을 하면서 작년 10월 실습을 했을 때와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3월 11일 진행

된 자조모임 보치아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보치아는 굉장히 생소한 스포츠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치아가 공을 굴리거나 던져 점수를 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보치아 선수들과 함께 게임을 해보니 보치아가 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상당히 재미있는 스포츠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치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유역에서 뇌성마비복지관이 있는 중계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유에서 중계역으로 가기 위해선 노원역에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4호선 노원역에서 7호선인 노원역으로 환승하는 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4호선 노원역 밖으로 나와 5분을 가야 7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장애인이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인은 환승을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지만 휠



문서작업을 도와주는 모습

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분들은 정말 많은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시설은 많아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은 느낄 수 없는 곳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불편함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치아 자조모임을 마치고…….

이제는 실습생이 아닌 직업인, 활동보조인으로써 강북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생시절과는 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맡은 바 소임 최선을 다하여 다른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에 의미와 장애인 차별 철폐의 이유

전난희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날의 정의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 원래 법정 장애인의 날 제정 당시는 '장애자(障礙者)의 날' 이던 것이 1981년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障礙人)의 날' 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장애인의 날 배경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을 제정, 시행해 오면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법에 명시하고, 4월 20일이 있는 4월 셋째 주를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지키고 있다. 1970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킬 것을 의결하고, 1971년 4월 20일부터 해마다 이날을 장애인의 날로 지킨 것이다. 그러나 1981년 법적으로 명시된 이후에 비로소 범국가적으로 지키게 되었다.

사실 1981년 법정 장애인의 날을 제정할 때와 현재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많이 다르다. 1981년에는 장애인(당시 호칭으로는 장애자)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로 대별하여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2000년 1월부터는 장애 범주가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가 추가되었다. 2003년 7월부터는 안면기형, 간질장애, 장루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가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장애인의 날 대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장애인올림픽(paralympic games)도 동반 개최하였다. 이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보장의 의미로서 장애자(障礙者)를 장애인(障礙人)으로 바꾸어 달라는 장애 관련단체의 주장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참여하고,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현 한국장애인복지회)가 기념식과 축하행사를 주관한다. 또 전국 각지에서 시도별로 각각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어 장애인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한다. 행사 목적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 의욕을 북돋우고,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있다.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및 관련단체, 기업



및 대학 봉사단체, 학생, 일반시민,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여 기념식, 야외문화행사, 먹거리광장 운영 등으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한다.

공식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포장·표창이 수여되며,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하여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한편, 4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장애인 주간을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꼭 정해서 하루만 장애인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365일 장애인을 기억하자는 것이 본 목적이다.

이처럼 장애인의 날은 일 년의 딱 하루를 정해 장애인들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행사를 많이 한다. 어떤 곳에서는 기념식을 하니 참석하라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체육대회 및 기념행사를 하니 오라 한다. 그뿐이라 어떤 곳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을 포상할 테니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념하고 축복할 일인가? 혹자는 장애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말하고, 또 누구는 장애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아 좋다고 말한다. 아무리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여도,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도 나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는 싫으세요?’ 라는 제목을 보았다. 그 신문에 내용인 즉은 커피숍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들이 만들어 준 커피는 먹기 싫다는 내용이었다. 또 어느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모씨가 탁자를 닦으려하자 필요 없다며 이모씨가 일 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말하였다는 기사였다. 이모씨가 뇌병변장애 6급으로 한쪽다리를 조금 끄는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으로 살아가기에는 편의시설과 사람들에 편견 섞인 시선들이 여전히 끊이지 않을뿐더러 부양의무제와 같은 제도적인 제약도 여전히 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장애인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초긍정적인 사람이거나 자기의 장애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들일 것이다.

장애인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장애인의 날에 열리는 그런 표면적인 행사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제도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른다.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장애등급제와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부양의무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시설도 없애야 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49만 여명에 이른다. 전 국민의 4.8%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가구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처럼 장애인들도 마음껏 거리를 누빌 수 있는 권리를 ‘이동권’이라고 부른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지하철 인프라를 장애인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버스에 탈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더 늘리고,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지자체에서 대폭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9/201704190005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9/2017041900059.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23196&cid=50221&categoryId=50230>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Id=0006&NewsCode=000620170419200731225113#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9/2017041900059.html?Dep0=facebook&news](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9/2017041900059.html?Dep0=facebook&news)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2301170698593>

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spine3000/220988095608>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장애인에티켓]

· 소음, 대중교통 이용 시, 음식점에서 ·



- 소음- 1) 시각장애인은 그들의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의 대부분을 소리를 통해서 얻습니다. 지나치게 큰 소음은 목소리 교통 신호 등과 같은 중요한 소리를 듣는데 혼동을 줍니다.
- 2) 시각장애인이 다 지나거나 소리를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는 큰 소음을 통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복사기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거리를 건널 수 있도록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면, 시각장애인이 처음으로 집을 방문했을 때 음악소리를 줄여주는 등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3) 만일 공사장의 작업소리,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등 부득이하게 소리를 통제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친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에 대해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됩니다.

- 택시 기사가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1)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타고자 할 때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시각장애인을 문으로 안내하고 문을 열어주며 차가 서 있는 방향을 말해 줍니다. 이때 차를 세운 뒤 경적을 울려 시각장애인이 차로 달려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 2) 시각장애인이 행선지를 말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명하면 가능한 한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 3) 시각장애인이 내려야 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주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길을 건너야 한다면 코너를 돌지 않도록 내려줍니다.
- 4) 큰 공공장소 또는 건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문에 내려줍니다. 행선지에 도착했을 때 말해주고 가능한 한 내려서 문을 열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버스운전기사가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1) 만일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차가 정차하는 곳에서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문을 열고 버스노선을 알려주고 시각장애인이 그 차를 탈것인지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 2) 당신의 버스를 탄다고 하면 버스에 타라고 이야기하고 요금 함이 어디에 있

는지 이야기해줍니다.

- 3) 시각장애인이 질문을 해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으로 가리키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해줍니다.
- 4) 시각장애인이 행선지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 5) 버스가 만원일 경우 자리를 양보해 주도록 합니다.
- 6) 시각장애인이 내리는 역을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 방송을 해줍니다.
- 7) 시각장애인이 내릴 때는 통로에 이르는데 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 8) 만일 차를 갈아탈 경우 갈아타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함께 내리는 승객에게 시각장애인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음식점에서-**
- 1) 시각장애인과 함께 식사를 계획할 때는 음식점을 선택하기 전에 시각장애인에게 먼저 어떤 특별한 욕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 2) 만일 시각장애인이 약간의 시력을 갖고 있다면 시각장애인은 어두운 분위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 3)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돕는다. 테이블 위에 촛불, 꽃병 같은 것은 시각장애인으로부터 멀리 놓습니다.
  - 4) 테이블 위에 이미 놓인 음료나 과자, 빵 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각장애인에게 그것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줍니다.
  - 5) 메뉴를 결정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다양한 메뉴와 가격을 읽어줍니다. 먹기 어려운 음식을 먹는 것을 도와주려면 주문을 하기 전에 미리 시각장애인에게 말을 해주어 시각장애인의 메뉴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줍니다.
  - 6) 음식이 도착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음식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간단한 설명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어떤 시각장애인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 7) 어떤 경우에 주문한 음식에 이상한 것이 들어 있거나 또는 먹어서는 안 될 장식용 물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gsrpd.org/bbs/board.php?bo\\_table=B45&wr\\_id=68&dis\\_t=2](http://www.gsrpd.org/bbs/board.php?bo_table=B45&wr_id=68&dis_t=2)

# 이달의 정보

## 제14회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

1. 일 시 : 2017년 4월 12일(수) / 오전 10:00~ 오후 4:00 (오프라인 박람회)  
2017년 3월 28일~4월 28일 (<http://jobable.seoul.go.kr>) (온라인 박람회)
  2. 장 소 : SETEC 1, 2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
  3. 내 용 :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일반기업, 공기업 약 280여개 업체 참가  
이력서 사진촬영, 메이크업, 헤어컷, 각종 상담 등
  4. 주 최 : 서울특별시
  5. 주 관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 의 :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사무국 ☎ 1588-1954  
자료출처- <http://job.seoul.go.kr/expo/index.jsp>

## 여성장애인 치료비 지원사업

CJ가 응원하는 여성장애인 건강UP 행복UP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전국 등록 장애인
- 신청 자격: 1. 6개월간 만성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  
2. 2016년 1월 이후 수술한 여성장애인  
(※ 미혼모, 중증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을 우선 선발하여 지원함.)
- 신청 기간: 2016년 12월~2017년 4월 30일
- 신청 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 원본을 갖춘 후 등기 접수
- 지원 액: 1. 6개월간 만성질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  
2. 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 60%  
(공통사항: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신청서류 접수 후 1회 심의회의를 통한 선정
-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단체양식 홈페이지 다운가능), 장애인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진료 및 수술비 납부 영수증, 의사 처방에 따른 진단서 및 수술 확인서
- 주 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지 원: CJ,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신청문의 및 기관 정보: 전화 02) 747-3675 (담당 이라나)/  
이메일. [kdawu@hanmail.net](mailto:kdawu@hanmail.net)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 센터 4층 2호  
홈페이지 [www.kdawu.org](http://www.kdawu.org)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nlebon/220937191810>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쁜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통을 외면하는 거예요.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은 거기서 시작돼요.”

\_김영하 장편소설 <너의 목소리가 들려>

# 강북센터 CMS 회비 납부목록

## 04월 회비납부 명단

권윤정	김낙현	김석현	김소연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문지수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손연숙	안병훈
안해영	오재준	유수근	윤두선	이경희	이영석	이영훈	이하용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민자	정종남	정주영	주영경	최윤숙
		최전균	허효숙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옹호 및 인식개선을 통한 자립생활 실현을 도모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를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는 전 강의(8강) 참석 시 강의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강의일정

회차	강의 날짜	강의 주제	강사진
1강	5월 26일(금)	아름다운 소통	손연숙(숭실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2강	6월 2일(금)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인권	김대성(한국 DPI 회장)
3강	6월 9일(금)	탈 시설과 인권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강	6월 16일(금)	장애학과 당사자주의	전지혜(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강	6월 23일(금)	장애인과 부양의무제	우주형(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6강	6월 30일(금)	발달장애인증심의 자립생활실천방안	정희경(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7강	7월 7일(금)	자립생활과 장애인활동보조	정중화(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8강	7월 14일(금)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현행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의 수강 후  
수료증과 수강확인서  
발급 함

**기간** | 2017년 5월 26일 ~ 7월 14일, 매주 금요일 14시 ~ 17시

**장소** | 강북문화예술회관 3층 세미나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85)

**신청방법** | 강북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 [kbcil@hanmail](mailto:kbcil@hanmail) 또는 팩스: 0303)0799-1758로 신청

**문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908-7776 담당: 허효숙 사회복지사

※ 강의 수강 후 수료증과 수강확인서 발급 함.  
※ 상기일정과 강사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  서울특별시

